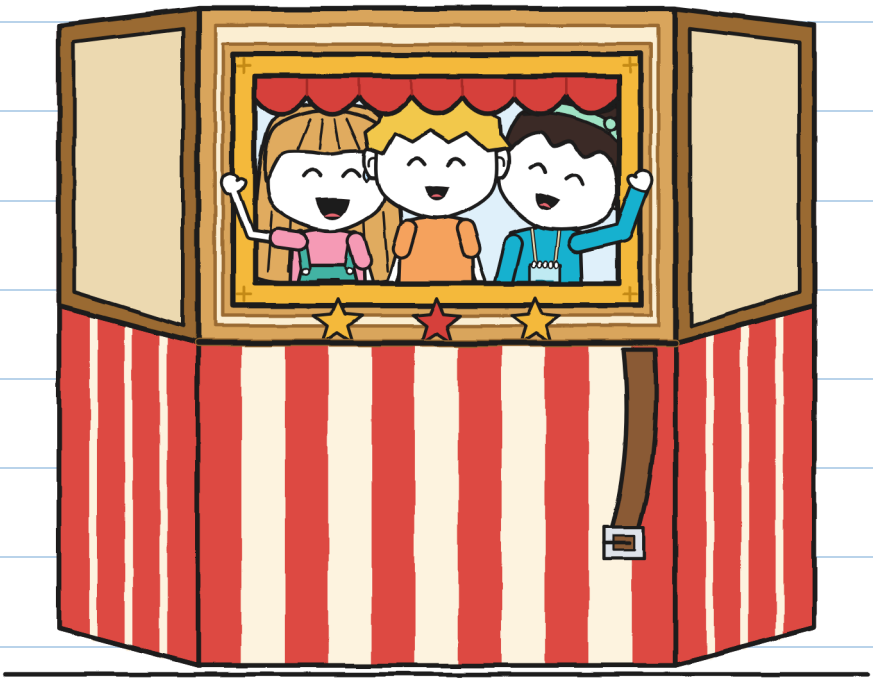
불가능 배달 · 6

자리 하나, 우리 셋

LinguAula



(구니의 공책)

사이즈 XS
처음 읽기 · 5+

불가능 배달 · 6

자리 하나, 우리 셋

글과 그림: LinguAula

사이즈 XS · 처음 읽기 · 5+

한국어판: LinguAula

초판: 2026

© 2026 LinguAula · info@linguaula.com

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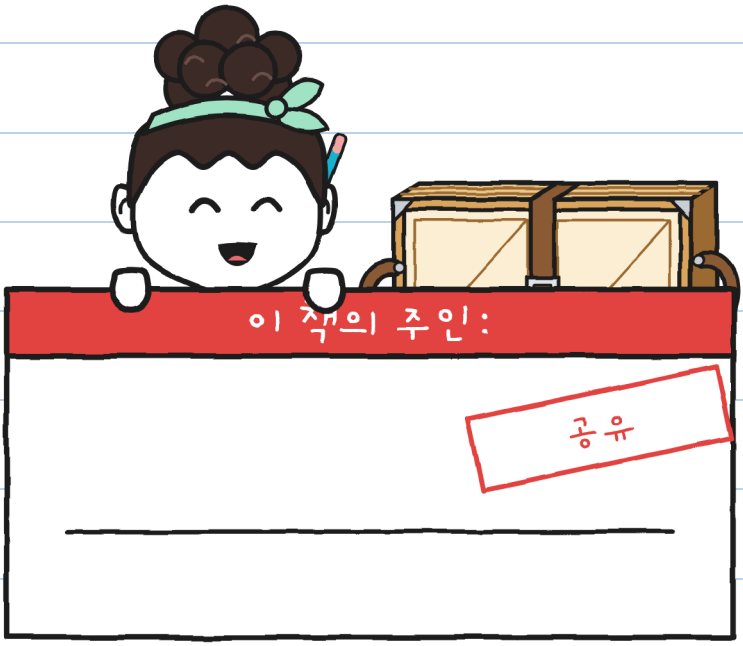
시리즈 여섯 번째 책.



LinguAula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

셋이서 든다. 손잡이는 골랐어. —J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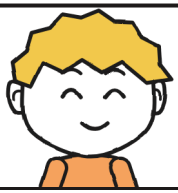
공유. 다 들어가. —J.

이걸 주웠다면 접어서 돌려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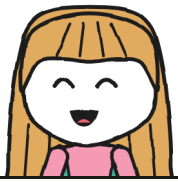
이야기 속에서만

진짜로, 76쪽을 봐. —J.

등장인물



구니. 센티미터로 잰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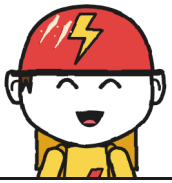
훌리타. 길을 안다.



노아. 걸음으로 잰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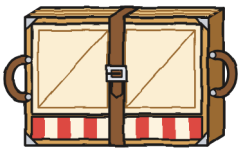
이레네. '멈춰'라고 말한다.



토쇼. 시간을 잰다.



마라. 택배를 빌려준다.



접는 극장.



R. 한 줄을 남겼다.

배달 공책 6
주인 : 구니

공유.



공책 5는 끝났다. 이번 공책은 주황색이다.

단어를 하나 썼다. 반 쪽은 비워 두었다.

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.

네 첫 쪽에 썼어. —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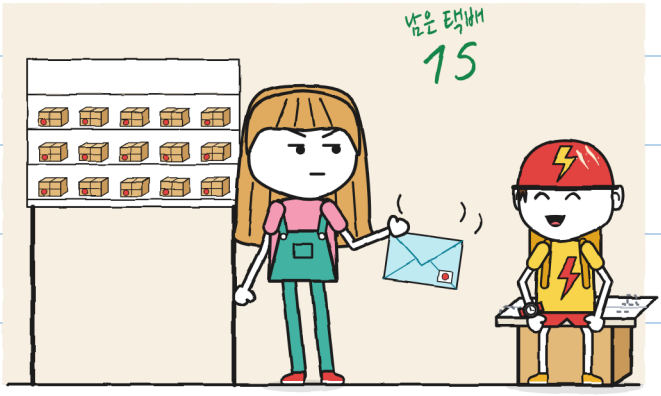
제1장

왜 셋이 필요할까?

월요일에 학교가 끝났다. 훌리타가 청록색 봉투를 들고 나를 기다렸다.

"안 열었어." 훌리타가 말했다.

"28분." 토뇨가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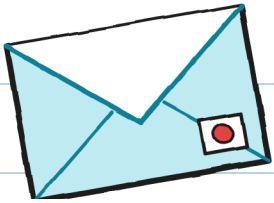


내 거 아니었어. 무거웠어. —J.

마라아줌마가 봉투를 연다.

저는 연극 공방의 이레네입니다.
한 줄이 빠졌습니다:
    미니 극장: 미수령.'
혹시 그쪽에 있나요?
3가일 토요일: 대회.
접혀서 오면,
셋이 오면 서명합니다.
노아는 둘을 더 찾습니다.

줄리타: 나야!
누군가를 데려와. —노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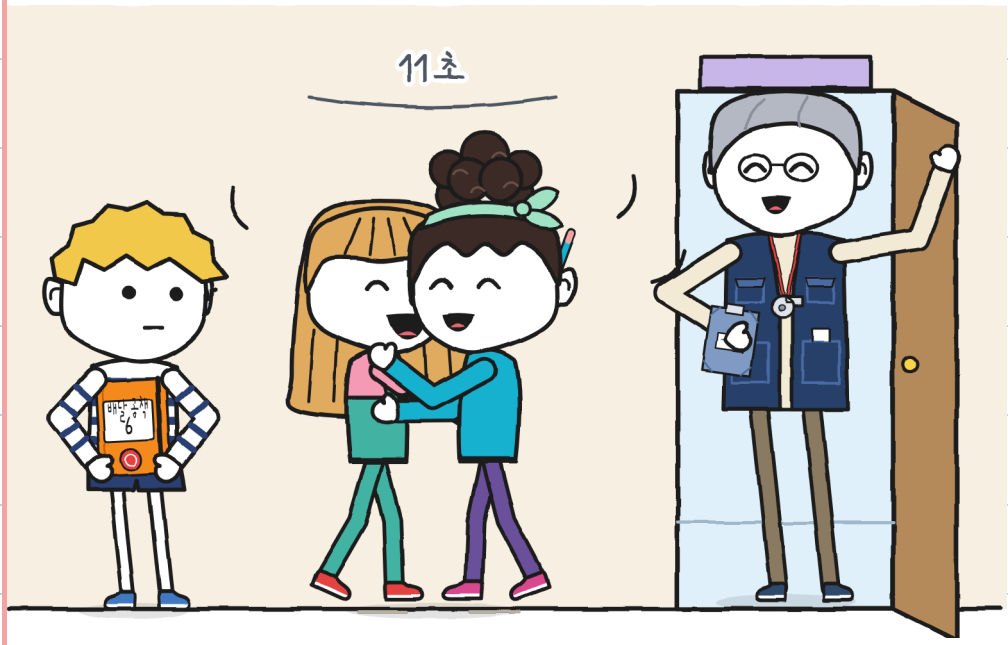
'택배 잘 아는 누군가'. 그게 나였다.

이레네 선생님과 노아가 5시에 왔다.

훌리타와 노아가 껴안았다. 11초.

"얘는 구니야." 훌리타가 말했다.

"안녕, 구니." 노아가 말했다.



마라 아줌마가 6번 택배를 내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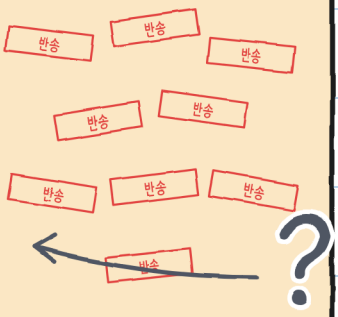
다른 것과 똑같은 상자였다.

6번

마당 공방

두 문으로

접은 채로 배달할 것



보내는 사람: **R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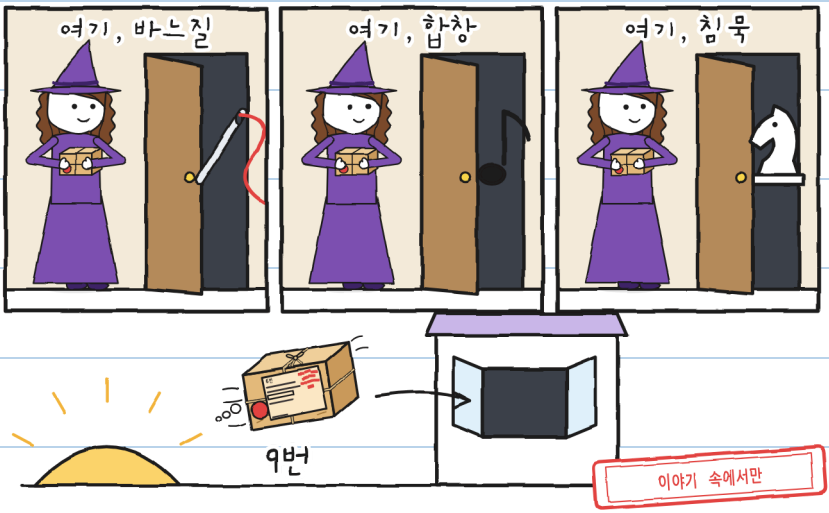
"도장이 아홉 개." 훌리타가 말했다.

"무슨 두 문이지?" 노아가 말했다.

아무도 몰랐다.

"아홉 번 갖다줬어요." 마라
아줌마가 말했다. 공방 이름으로
서명하는 사람은 없었다.
"연극은 마당에서 연습해요."
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.
이레네 선생님이 도장 찍힌 종이를
보여 주었다. 이제 서명할 사람이 있다.

마라의 아홉 번



"마라 아줌마가 가져가면 안 돼요?" 훌리타가 물었다.

"아홉 번 가져갔지."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.

"우리 아이들이 들 수 있어야 해요."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.

빌려주기

6번, 빌려줌.

이레네와 함께 나감.

집어서 돌아옴.

여기서 잠.



선반에서 자. —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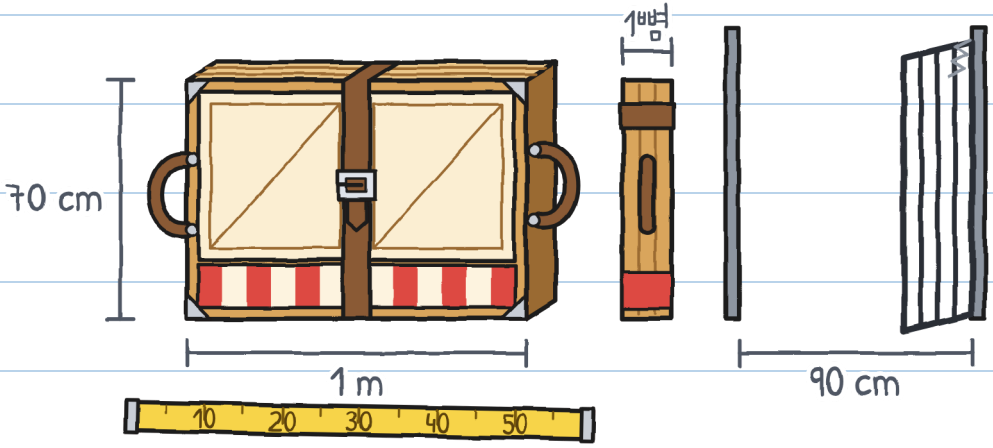
화요일에 우리는 마당에 갔다.

철문이 있다. 저절로 닫힌다.

미니 극장이 나와서 쑥

커졌다. 나는 줄자를 꺼냈다.

6번 크기



옆으로 세우면 들어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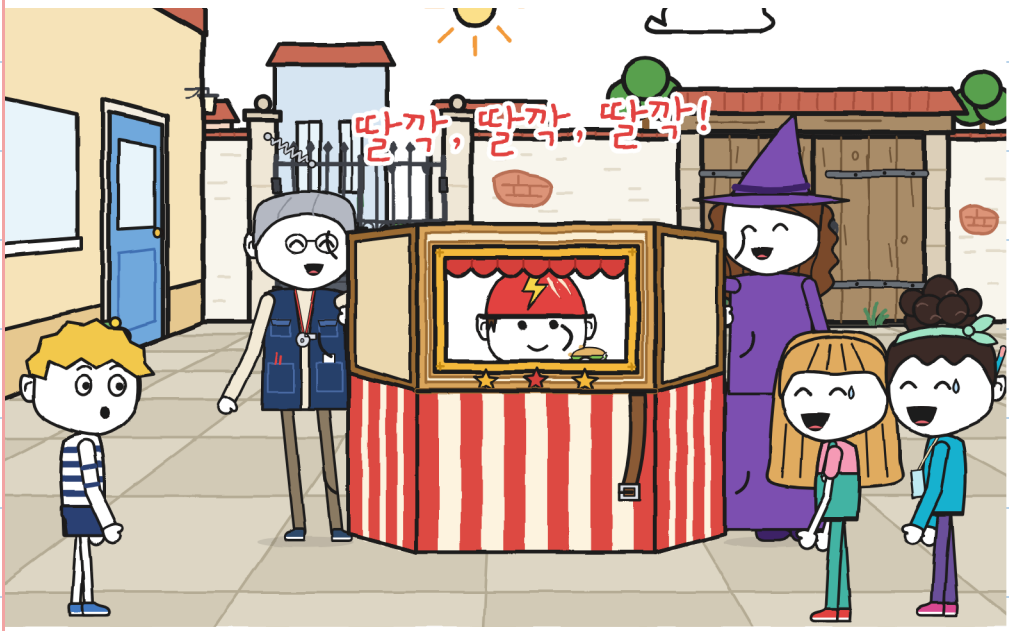
판들이 저절로 펼쳐졌다.

딸깍, 딸깍, 딸깍.

창으로 토뇨가 보였다.

"온전하네." 이레네 선생님이 말했다.

손은 손잡이에, 경첩에는 안 돼.



이레네 선생님과 마라

아줌마가 미니 극장을 접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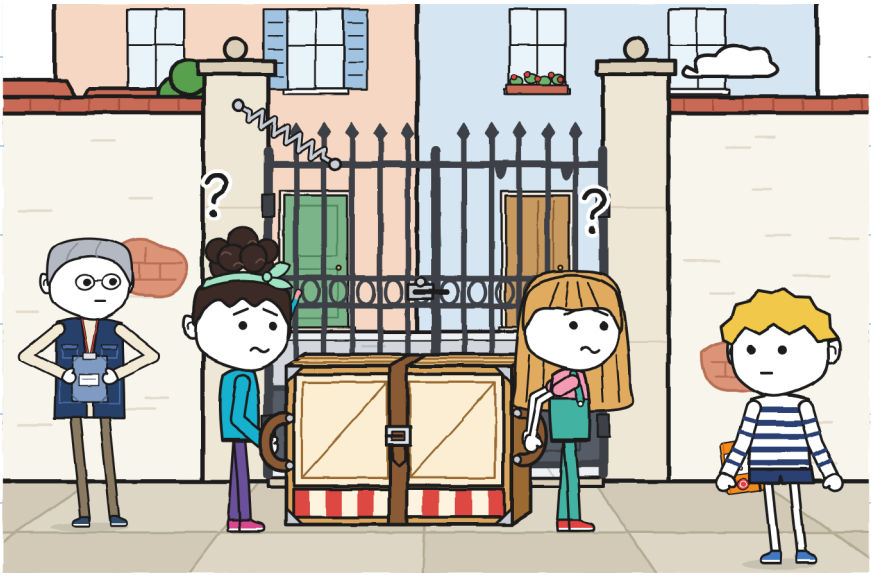
"저희가 해 볼게요." 훌리타가 말했다.

노아는 벌써 다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.

둘이 들어 올렸다. 철문에

도착했다. 문은 닫혀 있었다.

내 손은 비어 있었다.



나는 등으로 철문을
붙잡았다. 둘이 지나갔다.

그날 오후 나는 측정기를 발명했다.

셋 측정기

누가 무엇을 맡나

	들기 	안내 	길 열기 
마당, 첫 번째 시도	훌리타와 노아	훌리타와 노아	
마당, 두 번째 시도	훌리타와 노아	훌리타와 노아	구니

빈 칸이 있으면 통과 못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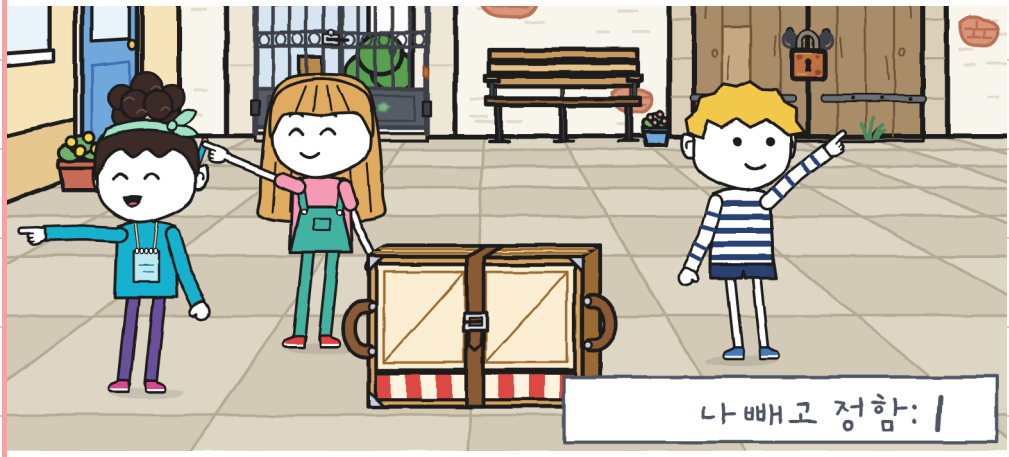
적었다. '철문은 돌멩이도 붙잡아 준다'.

라벨을 이해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.

"두 문짝이야." 훌리타가 말했다.

"나중에." 노아가 말했다.

나 혼자 갔다. 돌아오니 둘은 벌써 정했다. 나는 입을 다물었다.



그 작대기는 내 거였어. —J.

한 이야기, 여섯 가지 사이즈

여섯 가지 사이즈, 20개 넘는 언어.

사이즈 XXS · PRE-A1
구니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자리를 남겨 뒀어. '공유'라는 단어가 보여?

사이즈 XS · A1
단어를 하나 썼다. 반 쪽은 비워 두었다.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.

사이즈 S · A2
첫 쪽에는 단어를 하나 썼다.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.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.

사이즈 M · B1
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썼다.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.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.

사이즈 L · B2
첫 쪽에는 단어를 딱 하나 쓰고, 혹시 몰라 반 쪽을 비워 두었다. 그 자리는 1분도 비어 있지 못했다.

사이즈 XL · B2-C1
삽화 소설 · 13+
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.

각자 자기 사이즈로. —J.

가족과 교사를 위한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